

신석기시대 동해안지방의 토기문화에 대한 연구*

崔 鐘 赫

Choi, Jonghyuk
慶南文化財研究院 學藝課長

1. 서론

여기서 동해안지방은 한반도의 중동부에 해당하며 동해에 접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를 가리킨다. 동해안지방은 중서부지방과는 태백산맥을 끼고 대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급한 경사면을 나타내며 해안선은 남부·서부해안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다. 큰 강이나 하천은 없고 流長은 짧고 急流型으로 土砂의 流出이 심해, 하류에는 汎濫原이 발달해 있다. 그 때문에 沖積平野는 없고 해안부에는 浜堤와 砂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潟湖가 많이 보인다. 植物帶는 中部溫帶林(暖溫帶落葉廣葉樹)과 北部溫帶林(冷溫帶落葉廣葉樹)에 속한다. 이와 같이 동해안지방은 풍부한 森林에서 食用의 야생식물과 포유류가 서식하고 동해에는 寒·暖流가 합류해 어류의 산란장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적은 양자를 이용하기 쉬운 潟湖 등에서 水資源이 풍부한 해안부의 浜堤와 砂丘에 입지하고 있다.

동해안지방의 신석기시대 연구는 부진한 편이며, 그 연구도 초보적인 단계로 편년연구가 주요한 테마이다. 그 중에서도 오산리유적의 발굴성과를 둘러싼 편년연구가 가장 많이 보인다. 오산리유적은 동해안지방의 標識的인 유적이거나 유적이 사구에 위치하는 것에서 그 층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오산리유적 V층의 分層 문제로 많은 학자들간에 異見이 보인다. 그것은 보고서의 分層을 인정하는 흐름(宮本一夫1986, 小原哲1987)과 유적 입지와 자연환경 등에서 부정하는 흐름(김장석1991, 하인수1995, 이동주1997)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해안지방의 편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과의 관련성 문제 등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재단의 2000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근년 강원도에서는 활발한 조사활동에 의해 오산리유적 이외에도 몇몇 유적이 발굴조사 되어 오산리유적에 편중되었던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오산리유적의 分層問題와 다른 지방과의 관련성 문제를 중심으로 동해안지방의 토기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편년

동해안지방의 토기 편년연구는 오산리유적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오산리유적이 砂丘에 위치하는 것에서 보고된 V층의 分層 신뢰성에 대해 연구자간의 많은 異見이 인정된다. 즉, 보고서의 分層을 인정하는 흐름과 보고서의 分層을 유적 입지와 자연환경 등에서 부정하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와 함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해안지방 편년을 행하고자 한다.

우선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오산리유적은 총 여섯 개의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I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이고, IV층과 VI층은 非文化層이다.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은 II·III·V층이다. II층부터는 삼부위시문의 침선문토기가 출토해 중서부지방과의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다. III·V층에서는 平底의 鉢, 甕, 壺에 刺突·押引文을 주체로 하는 토기가 출토하며, 특히 V층은 한반도의 동북지방과의 연관성이 지적되어지고 있다(서울대학교박물관1984, 1985, 1988). 이와 같은 견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타당하지만 퇴적상태에서 7개로 세분한 V층의 土器群을 器形·胎土·施文位置·施文技法 등의 공통성에서 同時期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V층을 세분한 각 土層間에는 器種의 增加·문양모티브의 변화 등의 차가 보이는 것에서 V층을 同時期로 본 점은 문제가 된다.

小原哲씨는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같으나, 종래 후기로 편년되었던 춘천 교동유적의 토기를 古時期로 편년하고 있다. 이 편년안은 보고서와 같이 5층을 같은 시기로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된다.

宮本一夫씨는 보고서에서 同一時期로 본 V층을 器種組成 또는 構成의 差異(壺의 有無)와 施文技法의 差異(陰刻의 有無)에서 古(V-7·6), 中(V-5~3), 新段階(V-2·1)의 세 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이 편년안은 층위에 기본을 두고 文樣의 變化와 器種의 變化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된다.

김장석씨는 보고서의 分層을 유적의 입지와 자연환경 등에서 부정하고 층

위에 관계없이 土器의 形式的인 특징을 기초로 분석을 행하였다. 특히 口緣部의 形態·文樣配置·施文具의 屬性을 變數組合法을 이용해 10개의 型式을 설정하고 그것을 크게 2期로 편년하고 있다. 1期를 용기문토기의 器形과 文樣配置를 모방한 時期, 2期를 오산리에서 독자적으로 토기를 생산한 時期로 설정하고 있다.

하인수씨도 V層의 分層을 부정하고 토기의 분석을 文樣形態를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 器種組成·器形分類 順으로 검토를 행하였다. 그리고 文樣形態와 器種·器形의 相關關係를 검토해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期는 문양의 모티브와 器形에서 용기문토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把手附土器가 존재하지 않는 時期, 2期는 문양구성과 배치방법에서 1期의 전통이 보이지만 器種增加(把手附甕形)과 竹管文의 出現 등의 변화가 보이는 時期, 3期는 單獨文樣帶의 消滅·把手附土器의 增加·壺形土器의 出現 등의 특징이 보이는 時期, 4期는 오산리유적의 III層의 출토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時期로 편년하고 있다.

이동주씨는 V層의 토기를 口緣部 形態를 중심으로 5類型으로 구분하고 1類型에서 5類型으로 변천한다고 하고 있다. 1類型은 口緣部の 內面に 짧은 段이 있는 것으로 문양 등이 용기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時期, 2類型은 1類型的의 口緣部가 발달해 甕形으로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문양에 있어서는 刺突文의 단독요소는 없어지고 把手附甕形이 출현하는 時期, 3類型은 2類型的의 구연부가 더욱 발전해 甕形에서 壺形으로 발전하고, 문양에 있어서는 押引系의 短斜線文이 많이 보이는 時期, 4類型은 오산리토기의 특징인 구연부 내면의 단이 없어지고 爪의 위치가 頸部쪽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문양은 短斜線文이 주체가 되는 時期로 편년하고 있다.

위 세 사람의 편년안은 층위학적 발굴조건을 부정하고 型式學的인 면을 중시한 것이다. 김장석씨와 이동주씨의 편년안은 型式分類를 중시함으로써 器種의 變化, 즉 樣式과 形式을 무시한 점 등에서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특히 김장석씨가 설정한 2期는 型式分類의 기준인 口緣部形態·文樣配置·施文具의 屬性에서도 細分이 가능하다.

하인수씨의 편년안에 있어서 세분한 4개의 단계는 宮本-夫씨가 細分한 것과 거의 비슷하나 그 前後關係가 반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씨의 편년안은 V층의 分層을 부정하면서도 세분한 각층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필자도 씨의 분류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1期의 설정에 의문이 있다. 이것은 위 세 사람 모두 용기문토기의 단절론에 기본을 두고 용기문의 문양과 유사한 것을 가장 오래된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상의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편년에 대해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오산리유적의 층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편년에 있어서 층위를 중심으로 하고 그 후 器種·文樣 등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를 행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연구자간의 견해에서 공통된 요소로는 最古時期인 隆起土器 時期와 平底土器의 最後時期인 오산리유적의 Ⅲ層이다.

먼저 용기문토기 단계를 보면, 용기문토기는 출토 예가 많지 않아 남부지방과 같이 세분은 어려운 실정이다. 器形은 거의가 平底의 深鉢이다. 그러나 深鉢에는 두 형태가 있어 하나는 토기의 최대경이 구연부에 있는 것(圖1-2·3), 또 하나는 구연부의 지름과 동부의 지름이 거의 같은 것(圖1-1)이 있다. 文樣은 口緣部에 한정되어 횡의 용기문을 구연부와 평행하게 붙힌 것과, 그 위에 三角形을 나타낸 것이 있다. 그 외로는 최근 문암리유적이 조사가 이루어져 주거지와 아의노지 등이 검출되었다. 유적은 오산리와 유사해 해안에 형성된 砂丘의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지구는 두 지구(A·B)로 나뉘어져, A지구에서는 오산리형토기와 용기문토기가 共伴한다. 여기서 출토한 용기문토기는 대부분이 남부지방의 것과 유사하다. 결국, 평저의 심발로 구연부쪽에 문양대를 가지는 것이다. 문양 모티브도 남부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다. 遺構로는 원형의 주거지 2기가 검출되었다. 또 그 주거지의 하층에서 상면을 점토로 단단하게 다진 주거지도 검출되었다. 여기서는 마제석부 등 마제석기가 출토하였다. B지구에는 특별한 遺構는 없고 용기문토기와 결합식 낚시 바늘이 출토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A지구에서 오산리유적의 최하층인 V-7층에서 출토하는 문양(圖1-4·5)와 같은 것이 용기문토기와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에서 동해안지방에서도 용기문토기는 남부지방과 같이 단절되지 않고 적어도 오산리형토기(V-7층)까지는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저토기의 최후단계인 Ⅲ層에는 深鉢·壺 등이 있다. 深鉢은 前時期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壺는 頸部 곧 바로 올라가 定型化된다. 文樣은 無文樣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刺突技法의 複合文도 보인다(圖1-28·29).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해안지방의 편년을 행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오산리유적의 V層에 대해서 검토한 후 편년을 행하고자 한다.

우선 보고서에서 세분한 V層의 各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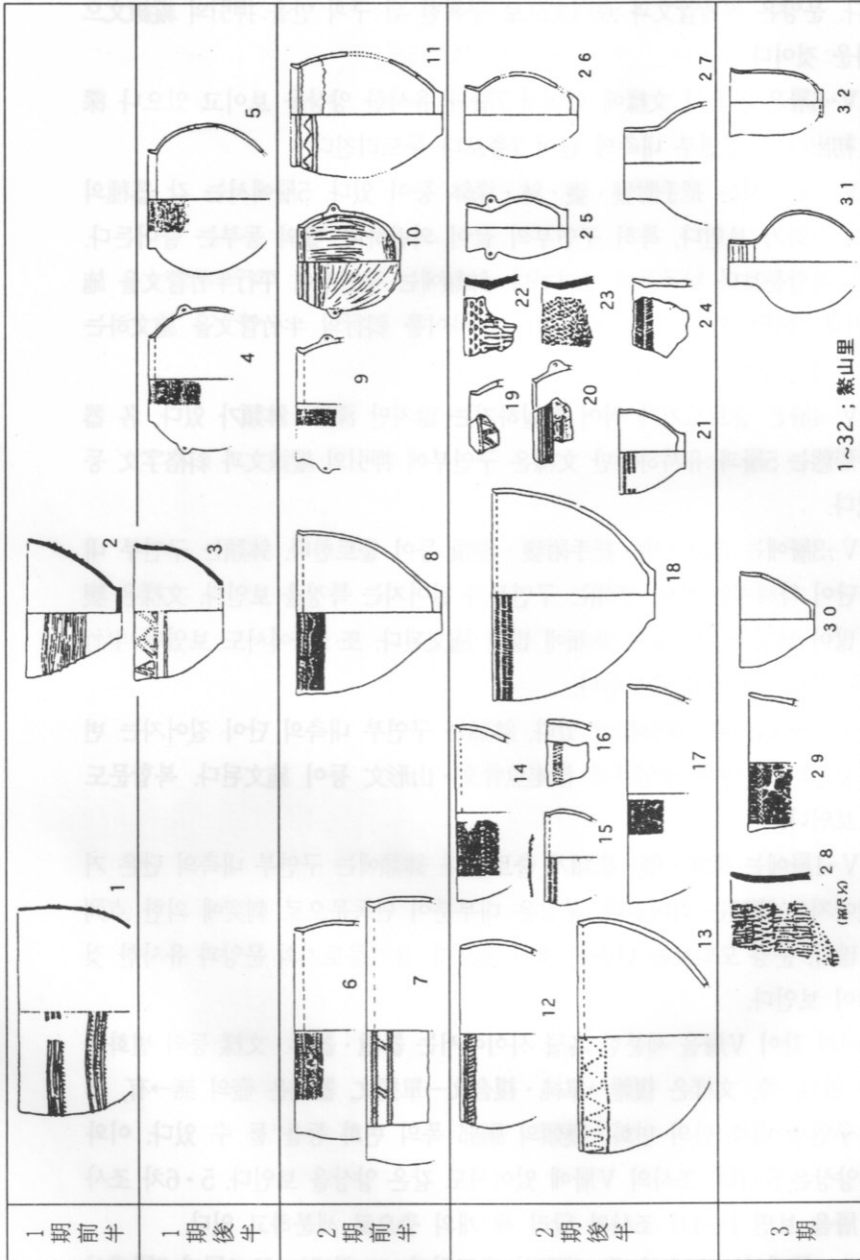


圖 1. 平底土器編年(S=1~21・25~27:1/10, 그 외:1/14)

1~32 ; 紫山里

V-7층은 출토토기가 적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把手附甕·甕·鉢類가 출토한다. 문양은 半竹管文과 点列文으로 구획한 뒤 구획 안을 押引의 縱線文으로 채운 것이다.

V-6층은 器形과 文樣에 있어서 7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深鉢이 初出하며, 구연부 내측의 단이 7층보다 두드러진다.

V-5층에서는 把手附甕·甕·鉢·深鉢 등이 있다. 5층에서는 각 器種의 形態의 변화가 보인다. 특히 구연부의 끝이 외반하며, 甕의 동부는 줄어든다. 문양은 복합문보다 단독문이 증가한다. 鉢類에는 구연부에 平行半竹管文을 施文하거나 平行竹管文으로 구획한 뒤 그 사이를 斜行의 半竹管文을 施文하는 것이 주체가 된다.

V-4층은 출토토기가 적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深鉢·鉢類가 있다. 各 器種의 形態는 5층과 유사하지만 文樣은 구연부에 押引의 縱線文과 斜格字文 등이 있다.

V-3층에는 深鉢·甕·把手附甕·壺類 등이 출토한다. 鉢類는 구연부 내측의 단이 약해지는 反面, 甕類는 구연부가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文樣은 甕類에 많이 보였던 複合文이 鉢類에 많이 施文된다. 또 5층에서도 보였던 半竹管文도 같은 모티브로 출토한다.

V-2층에는 壺·深鉢類가 있다. 鉢類는 구연부 내측의 단이 길어지는 변화가 보인다. 문양은 구연부에 橫走魚骨文·山形文 등이 施文된다. 복합문도 조금 보인다.

V-1층에는 深鉢·甕·壺類가 출토한다. 鉢類에는 구연부 내측의 단은 거의 없어지고 甕類는 적어진다. 문양은 대부분이 단독문으로 刺突에 의한 点列文이 많다. 문양 모티브는 단순한 것이 많으며, 용기문토기의 문양과 유사한 것이 많이 보인다.

이와 같이 V층을 세분한 各層 사이에서는 器種·器形·文樣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文樣은 複雜→單純·複合文→單獨文, 器種은 壺의 無→有, 器形은 구연부 내측 단의 변화·甕類의 胴部 폭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5·6차 조사의 V층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5·6차 조사의 V층을 보면 1~4차 조사와 달리 세 개의 층으로 세분하고 있다.

V-a층에서는 無文의 碗·甕類가 출토한다. 그 형태는 V-1층과 3층에서 출토한 壺類와 유사하다. 口脣刻目土器도 보인다.

V-b층은 甕·把手附甕·壺類가 출토한다. 그 형태는 V-5층과 유사하고 문양도 같은 平行半竹管文이 주체를 점한다.

Ⅲ V-c층에는 甕·把手附甕·鉢類가 출토한다. 器形은 V-7層과 유사하고 문양도 유사해 半竹管文과 点列文으로 구획한 후 구획 안을 押引의 縱線文으로 채운 것이 많다.

이와 같이 오산리유적의 V層은 1~4차 조사와 5·6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세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A期는 器種으로는 甕類, 文樣은 刺突과 押引文의 複合文을 특징으로 하는 時期로 6·7層과 c層이 속한다. B期는 A期 甕의 胴部가 약해지고 文樣은 刺突技法의 半竹管文이 單獨施文되는 특징을 보이는 時期로 5·4層과 b層이 속한다. C期는 B期 甕의 胴部가 더욱더 약해지고 口緣部가 긴 壺와 같은 것과 壺가 특징적인 器種이다. 文樣은 刺突의 点列文이 주체인 時期로 1~3層과 a層이 속한다.

오산리유적 V層의 세분에 관한 문제는 이와 같이 各層의 連續性和 各層의 토기 屬性의 類似性 등에서 세분된 층은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인수씨의 편년안에서도 각 단계의 양상은 층위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분된 7개의 층 중에서 어느 층이 가장 古段階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평저토기 중 가장 새로운 시기인 Ⅲ層을 보면 器種으로는 壺·深鉢·鉢類 등이 있다. 또 深鉢은 前時期까지 보이던 구연부 내측의 단이 없어지며, 壺도 定型化된 양상을 보인다. 文樣은 無文이 많아지며, 有文은 多齒具를 이용해서 刺突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Ⅲ層에서는 器種·器形·文樣施文의 技法 등에서 C期の 특징이 많이 보인다. 또 C期에서 출토량이 감소하는 甕類는 Ⅲ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등에서 C期가 V層 안에서 가장 새로운 時期로 생각된다. 한편, A期는 壺가 없는 것·甕이 주체인 점·시문기법에 刺突과 押引이 있는 것 등에서 Ⅲ層과는 많이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또 위에서 서술했듯이 문암리유적에서는 A期 甕과 같은 문양을 가지는 深鉢이 용기문토기와 共伴하고 있다.

이상의 요소와 A期에는 深鉢이 적은 것·문암리유적의 상황에서 생각할 때 동해안지방에서도 남부지방과 같이 용기문토기는 斷絶되지 않고 적어도 A期까지는 존속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V層 안에서는 A期가 最古段階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산리유적 층위는 신뢰성이 있으며, 위 내용을 정리하면 평저토기 편년은 隆起文土器期(1期前半)→隆起文土器와 오산리유적 A期(1期

後半)→오산리유적 B期(2期前半)→오산리유적 C期(2期後半)→오산리유적 III층(3期)의 순이 된다(圖1).

다음으로 동해안지방의 丸底 또는 尖底土器의 편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현재까지는 오산리유적 A지구의 II層과 B지구의 I層의 침선문토기 자료뿐이었으나 근년 地境里·柯坪里遺蹟 등의 발굴조사가 행해져 오산리유적의 침선문토기 보다 古식의 것도 보인다.

오산리유적의 침선문토기는 口緣部에 短斜線文, 胴部에 橫走魚骨文, 底部에 斜線文이 각각 施文되어 있다. 구연부에는 단사선문 이외에도 사격자문·삼각집선문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중서부지방과의 연관성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서부지방의 古式인 從屬文을 가지는 토기는 4점뿐이며 그것도 침선에 의한 斜線文과 山形文이다. 지표채집의 자료에는 胴部에 縱走魚骨文이 있는 것도 있다. 그 외로는 단사선문에 의한 구획 내에 침선에 의한 삼각집선문을 채운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오산리유적의 침선문토기는 從屬文이 刺突에 의한 것이 없는 것과 縱走魚骨文이 적은 것에서 중서부지방과 비교하면 빠른 시기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경리유적에서는 尖底의 深鉢과 平底의 鉢形 등이 출토한다. 尖底 深鉢土器는 口緣部에 短斜線文, 胴部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져 있다. 底部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오산리유적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從屬文으로서는 三角集線文·山形文·斜集線文·縱走魚骨文 등이 있다. 平底土器의 器形은 오산리유적의 평저토기와 유사한 것과 지답리유적 1지구의 평저토기와 유사한 것도 보인다. 문양은 각각 구연부에만 施文된 것이 많고 문양 모티브는 点列에 의한 菱形과 橫線文이 있다. 지경리유적의 토기를 중서부지방과 비교하면, 지경리유적의 尖底·丸底土器의 특징으로는 刺突에 의한 從屬文이 없고 集線文에 의한 것이 많은 것과 胴部文으로서 縱走魚骨文이 적고 거의가 橫走魚骨文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강유역의 2期의 특징과 유사하다. 반면, 평저토기는

2) 한강유역의 편년은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1期는 從屬文의 有無로 前半과 後半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은 三部位施文으로 口緣部에 短斜線文類, 胴部에 縱走魚骨文, 底部에 橫走魚骨文 또는 斜線文이 施文된 것. 후반은 전반의 것에 從屬文이 새로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從屬文은 刺突에 의한 菱形紋·重弧文과 그 複合文, 沈線에 의한 斜格字文·斜線文 등이 있고 그 주체는 刺突에 의한 것이다. 2期는 1期の 從屬文이 있는 토기와 유사하지만 胴部文이 縱走魚骨文에서 橫走魚骨文으로 변화하고 從屬文의 變遷(種類와 바리에이션의 增加·文樣帶擴大)과 施文具의 變化(單齒具에서 多齒具)등이 보이는 시기. 3期는 2期에서 從屬文이 消滅

한강유역의 1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경리유적에서는 尖底·丸底土器와 平底土器의 樣相이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평저토기는 중서부지방의 영향 외에도 前時期의 평저토기와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서부지방의 토기가 출토하는 주거지(7호)와 남부지방의 토기가 출토하는 주거지(6호)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6호주거지가 7호주거지를 깨고 들어선 것으로 6호주거지가 새로운 시기의 것으로 7호주거지와 동일한 토기가 출토하는 1·4·10호주거지를 하층문화로, 6호주거지를 상층문화로 생각하고 있다(고동순1999).

이와 같이 지경리유적의 하층문화는 한강유역의 2기, 상층문화는 남부지방의 중기²⁾에 해당된다.

가평리유적에서는 深鉢이 주체이며, 口緣部에 短斜線文·斜格字文, 胴部에 縱走魚骨文·橫走魚骨文 등이 있다. 底部에는 無文의 것도 보인다. 從屬文으로는 縱走魚骨文이 있다. 그 외로는 点列文을 幾何學狀으로 施文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가평리유적에서도 한강유역과 같이 주거지에서 여러 시기의 것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해안지방의 尖底·丸底土器의 편년은 지경리유적을 중심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圖2). 우선 4기는 중서부지방과의 관련성이 강한 지경리유적의 하층문화가 해당된다. 5기는 남부지방과의 관련성이 강한 지경리유적의 상층문화와 오산리유적이 해당된다. 가평리유적은 여러 시기의 것이 혼재하고 있으나 그 중심시기는 오산리유적과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동해안지방의 토기편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크게 보아 平底土器에서 尖底·丸底土器로의 변천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저토기는 隆起文土器→隆起文土器+鰲山里型土器→鰲山里型土器로, 尖底·丸底土器는 中西部地方의 土器→南部地方의 土器로의 변천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송전리유적 등에서 보이나, 지표채집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양도 적기 때문에 확실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논하고자 한다.

하고 多齒具에 의한 橫走魚骨文의 增加 集線文의 胴部文 出現 등의 변화가 보이는 시기. 底部文은 생략된 것도 있다. 4기는 三部位 文樣帶가 없어지고 하나의 문양으로 전면 또는 底部 文樣을 생략한 것이 보이는 시기.

3) 南部地方의 中期의 編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 토기편년에 대한 검토-중기를 중심으로-」 『丹雪 李蘭暎博士 停年 紀念論叢』 2000.을 참조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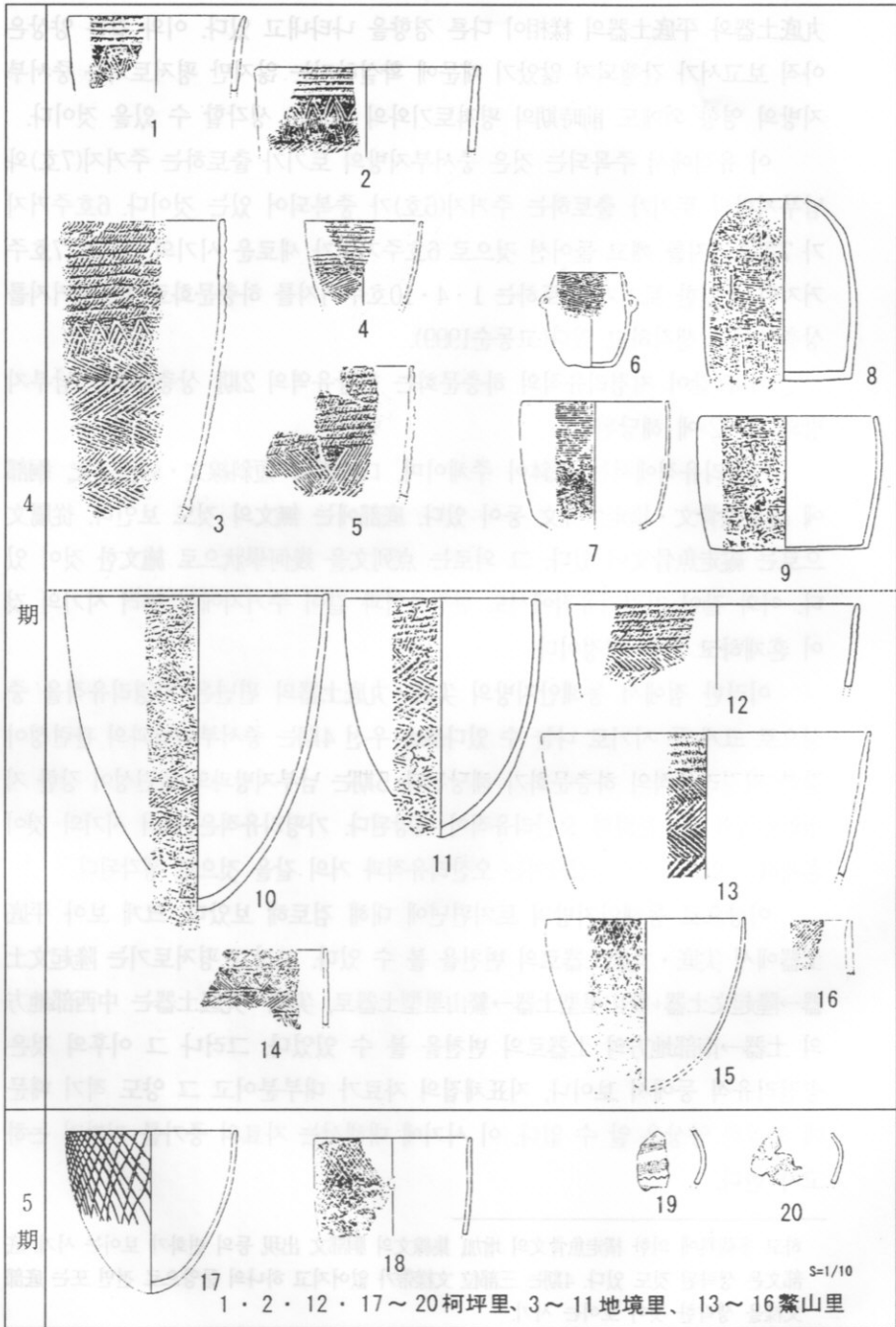


圖 2. 尖底·丸底土器編年

3. 토기문화

동해안지방의 토기편년은 器種·文樣 등의 변화에서 5期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남부지방의 5時期區分⁴⁾에 대입해 보면 1期는 早期, 2期는 前期, 3期~5期는 中期에 해당된다. 後期이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료의 부족으로 확실한 양상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먼저 각 시기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각 시기의 토기문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早期(1期)는 남부지방과 같이 용기문토기부터 시작된다. 출토량이 적어 남부지방과 같이 세분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문양 모티브나 문양변화(單純→複雜)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또 용기문토기는 문양리유적에서 보이는 것 같이 甕形을 특징으로 하는 鰲山里型土器(본문의 1期後半)까지 존속한다. 이 시기의 오산리형토기는 甕形이 주체이며 문양은 半竹管文과 点列文으로 구획한 뒤 구획 안을 押引의 縱線文으로 채운 것을 말한다. 甕에는 把手가 붙은 것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해안지방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前期(2期)가 되면 용기문토기는 없어지고, 오산리형토기도 문양과 기형에 변화가 보인다. 그 변화에 의해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구연부가 외반하며, 甕形은 胴部의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문양은 조기의 복합문에서 자들의 단독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발형의 문양은 용기문의 모티브를 흉내낸 것이 보인다. 후반에는 甕의 구연부가 길어지고 胴部의 폭이 더욱더 줄어들어 壺와 같은 형태로 변화한다. 또 壺形土器가 初出한다. 鉢類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것도 보이며, 前半까지 특징이었던 구연부 내측의 단이 거의 없어진다. 문양은 구연부에 한정되어지고 단순한 것이 많아진다. 자들에 의한 단독문이 주체를 점한다. 甕과 壺에는 無文樣의 것도 보인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침선의 사격자문·횡주어골문·口脣刻目土器(남부지방의 요소)와 押壓三角文과 刺突短斜線文의 複合文과 壺(동북지방의 요소) 등이 출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中期(3期~5期)는 동해안지방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3期는 前期와 같이 평저토기문화로 前期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구연부 형태와 문양 등에서는 4期の 요소도 보이는 것에서 前期와 中期의 過渡期的인 時期로

4) 남부지방의 편년은 3시기구분, 4시기구분, 5시기구분 등의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5시기구분을 사용한다. 본문의 5시기구분은 수가리패총의 보고서에 기본을 둔 것이다.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I, 釜山大學校博物館

상정할 수 있다. 한편 4기와 5기는 前時期와는 器形·文樣 등에서 확실히 구분되며, 4기는 중서부지방의 토기인 尖底·丸底의 三部位施文土器가 출토하며, 5기는 남부지방의 태선침선문토기가 출토해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前半은 口緣部에 短斜線文, 胴部에 縱走魚骨文·橫走魚骨文이 각각 시문되어져 있으며 從屬文도 보이며 그 주체는 沈線의 集線文이다. 이외에도 평저의 鉢類·甕類 또는 壺類도 보이며 그 문양과 기형은 중서부지방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한강유역과 같이 중서부지방의 1기~3기의 것이 혼재해 있어 편년은 어려운 실정이나 그 중심 연대는 한강유역의 2기로 추정된다. 後半은 태선침선문이 출토하며 종속문도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기이후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으나 가평리유적에서 사격자문이 구연부에 한정되어 시문된 것이 보이는 것에서 中期後半과 같이 남부지방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동해안지방은 한반도 각지의 토기요소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早期는 남부지방과 같이 용기문토기 문화권을 형성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점도 많이 보인다. 즉, 남부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용기문과 세침선문의 복합문은 동해안지방에서는 보이지 않고, 동부지방의 특징인 甕形토기는 남부지방에서 보이지 않는 등 지역성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前期가 되면 더욱 강해져 전반은 獨自性이 강한 오산리형토기가 주체가 된다. 후반이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동북지방과 남부지방의 요소가 보인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남부지방과는 문양 모티브에서 관련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것은 두 지방 모두 용기문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교류 또는 전파 등의 영향보다는 그 지방에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것은 다음 시기인 3기에서도 남부지방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동북지방과는 器形(壺의出現)과 文樣(押壓文과 刺突文의 複合文)등에서 공통점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해안지방에 나타나는 口脣刻目土器도 남부지방보다는 동북지방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⁵⁾ 이와 같이 전기는 남부지방보다는 동북지방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엿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중기는 중서부지방과의 관련성이 강한 시기로, 그 안에서도 한강유역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즉, 대동강유역과 한강유역은 문양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보인다. 구연부의 문양은 대동강유역이 점열문, 한강유역이

5) 이 시기 동북지방의 羅津·Boisman II 유적에서도 구순각목토기가 있으며, 전체적인 기형이나 문양 등이 남부지방보다는 동북지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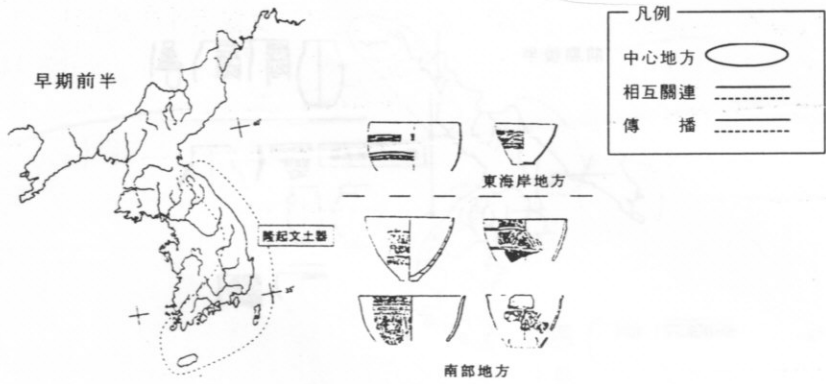


圖 3-1. 早期前半의 樣相



圖 3-2. 早期後半의 樣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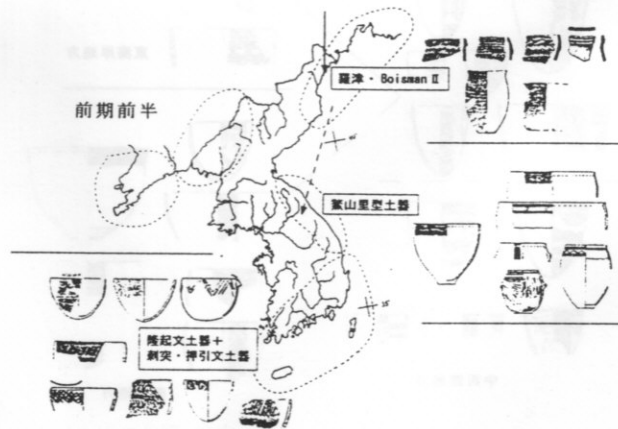


圖 4-1. 前期前半의 樣相



圖 4-2. 前期後半の 様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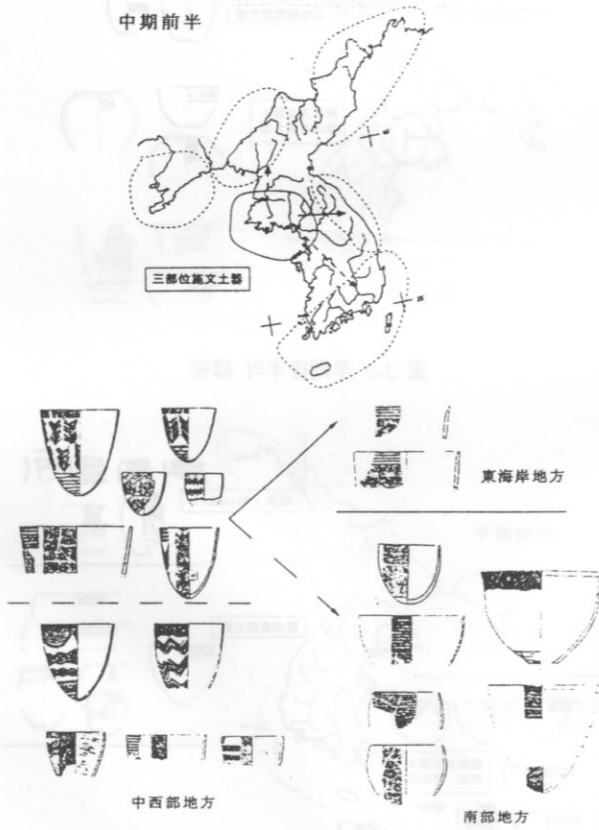


圖 5. 中期前半の 様相

단사선문으로 각각 주체를 나타내며, 從屬文은 대동강유역이 자들의 重弧文·菱形文이 주체인 반면, 한강유역은 대동강유역의 것에 침선에 의한 사격자문과 집선문 등이 더해진다. 동해안지방은 한강유역과 같이 구연부에 단사선문, 從屬文으로는 침선에 의한 집선문이 주체이다. 이러한 요소에서 중기전반은 한강유역과 함께 삼부위시문토기 문화권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해안지방에서 三部位施文土器의 등장시기는 중서부지방에서 보이는 單一文(全面橫走魚骨文)土器가 보이지 않는 점과 지경리유적에서 보였듯이 중서부지방의 토기 다음으로 태선침선문토기가 나타나는 점등에서 한강유역의 1期後半 또는 2期와 並行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후반은 남부지방의 태선침선문토기와의 연관성을 가지나,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후기이후의 상황은 가평리유적과 송전리유적 등에서 단편적으로 보여 확실한 양상을 알 수 없는 실정이나, 가평리유적에서 사격자문이 구연부에만 한정되어 시문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기후반과 연속적으로 남부지방과의 연관성을 엿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해안지방에서는 시기에 따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지역이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즉, 조기전반은 남부지방→조기후반에서 전기전반은 독자성이 강한시기→전기후반은 동북지방→중기전반은 중서부지방→중기후반에서 후기는 남부지방으로 변화한다(圖3~5).

4. 결론

이제까지 동해안지방의 편년과 토기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동해안지방은 유일하게 남부지방과 같이 용기문토기가 인정되며 편년연구는 주로 오산리유적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한반도 중에서 다른 지방의 토기문화가 가장 많이 混在하고 있는 곳으로 研究者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가 현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산리유적의 재검토와 최근 발굴조사된 문암리·지경리·가평리유적의 출토양상에서 어느 정도 先行 研究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편년에 있어서는 오산리유적 V層의 分層에 대해서 토기의 器形·文樣·器種 등의 속성과 문암리유적의 출토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器

形은 甕類의 胴部 폭 변화·구연부 내측 단의 변화(有→無), 器種은 壺의 無→有, 文樣은 複雜→單純·複合文→單獨文 등의 변화가 보여 V層의 안정성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평저토기를 위의 속성의 변천에 따라 크게 3時期로 나눌 수 있었다. 또 용기문토기도 문암리유적에서 출토하는 양상으로 보아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오산리유적 A期까지는 사용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尖底·丸底土器는 지경리와 가평리유적의 새로운 자료를 통해 중서부지방의 토기가 출토하는 時期와 남부지방의 토기가 출토하는 時期, 즉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었고 그 기원은 중서부지방(한강유역)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동해안지방 자체의 변화도 보이지만 다른 지방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 변화는 시기에 의해 변화하며 조기전반은 용기문토기로 남부지방과 동일문화권을 이루나 조기후반과 전기전반에는 甕形土器로 독자성이 강한 시기이다. 전기후반에는 壺形土器와 押壓三角文과 자돌단사선문의 복합문 등에서 동북지방과의 관련성을 보인다. 중기가 되면 平底土器文化圈에서 尖底·丸底土器文化圈으로 큰 변화가 보이며, 전반에는 구연부·종속문의 문양으로 보아 한강유역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후반에는 태선침선문토기의 등장으로 남부지방과의 관련성을 엿 볼 수 있었다. 후반이후에는 자료가 적은 관계로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었으나 가평리·송전동유적에서 남부지방의 후기와 유사한 토기가 출토하는 것에서 중기후반과 같이 남부지방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동해안지방의 토기문화는 한반도에서 그 변화가 가장 확실히 보이는 지역이며, 시기에 따라 그 관련성을 가지는 지역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편년 또는 지역성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발굴조사된 유적이 강원도 襄陽地域에 밀집되어 있으며, 후기이후의 자료가 적은 관계로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지면동유적에는 지표채집 자료이나 서북지방의 특징인 之字土器가 출토하는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謝辭

발표의 기회를 주시고 지도해 주신 沈奉謹先生님을 비롯해 李蘭暎先生님,

朴廣春선생님, 朴銀卿선생님, 鄭義道선생님, 金幸賢선생님과 본고 작성에 있어서 조언과 지적을 해주신 西谷正선생님, 田中良之선생님, 宮本一夫선생님, 李東注선생님, 田中聰一씨, 石川健씨에게 감사드린다. 또 오산리유물·문암리유물·지경리유물을 실견하게 해주신 서울대학교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강릉대학교박물관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 드린다.

본고는 2000년 九州大學에 제출한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고동순, 1999, 「강원도 동해안의 신석기유적에 대한 소고-양양 지경리유적을 중심으로-」 『남한 신석기문화의 지역적 양상』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98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襄陽柯坪里』
- 宮本一夫, 1986,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 121, 朝鮮學會
- 김성범·심영섭, 1997, 「軍事保護地區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要-江原道 高城郡篇-」 『文化財』 30.
- 김장석, 1991, 『오산리토기의 연구』 서울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白弘基, 1980, 「江原道 東海岸의 櫛文土器文化」 『歷史學報』 87
- _____, 1994, 『東北亞平底土器의 研究』 學研文化社
- _____, 1995, 「東海岸 先史時代의 特性-襄陽郡 地鏡里 出土 土器를 중심으로-」 『韓·日先史文化의 交流와 襄陽 鰲山里遺蹟 新石器文化』 襄陽文化院·韓國新石器研究會
- 白弘基·池賢柄, 1994, 「襄陽郡의 先史考古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 小原哲, 1987, 「朝鮮櫛目文土器의 變遷」 『東アジア考古と歷史』 上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4, 『鰲山里遺蹟』
- _____, 1985, 『鰲山里遺蹟』 II
- _____, 1988, 『鰲山里遺蹟』 III
- 有光教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의 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論叢3冊
- 윤근일, 1996, 「襄陽 柯坪里 新石器遺蹟에 대하여」 『동아시아에 있어서 襄陽 鰲山里 新石器文化의 位置』 襄陽文化院·韓國新石器研究會
- 이동주,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論文
- 任孝宰, 1991, 「중부 동해안과 동북지역의 신석기문화 관련성 연구」 『韓國考古學報』 26
- 田中聰一, 1999, 「韓國 東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에 대하여-西浦項 I·II期와 그 周

邊」『韓日新石器研究會제3회 資料集』
_____，2000，「韓國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에 대하여-襄陽 鰲山里遺蹟出土 鰲
山里式土器의 檢討를 中心으로-」『文物研究』第4號
하인수, 1995, 「鰲山里土器의 再檢討」『釜山廣域市立博物館研究論集』3